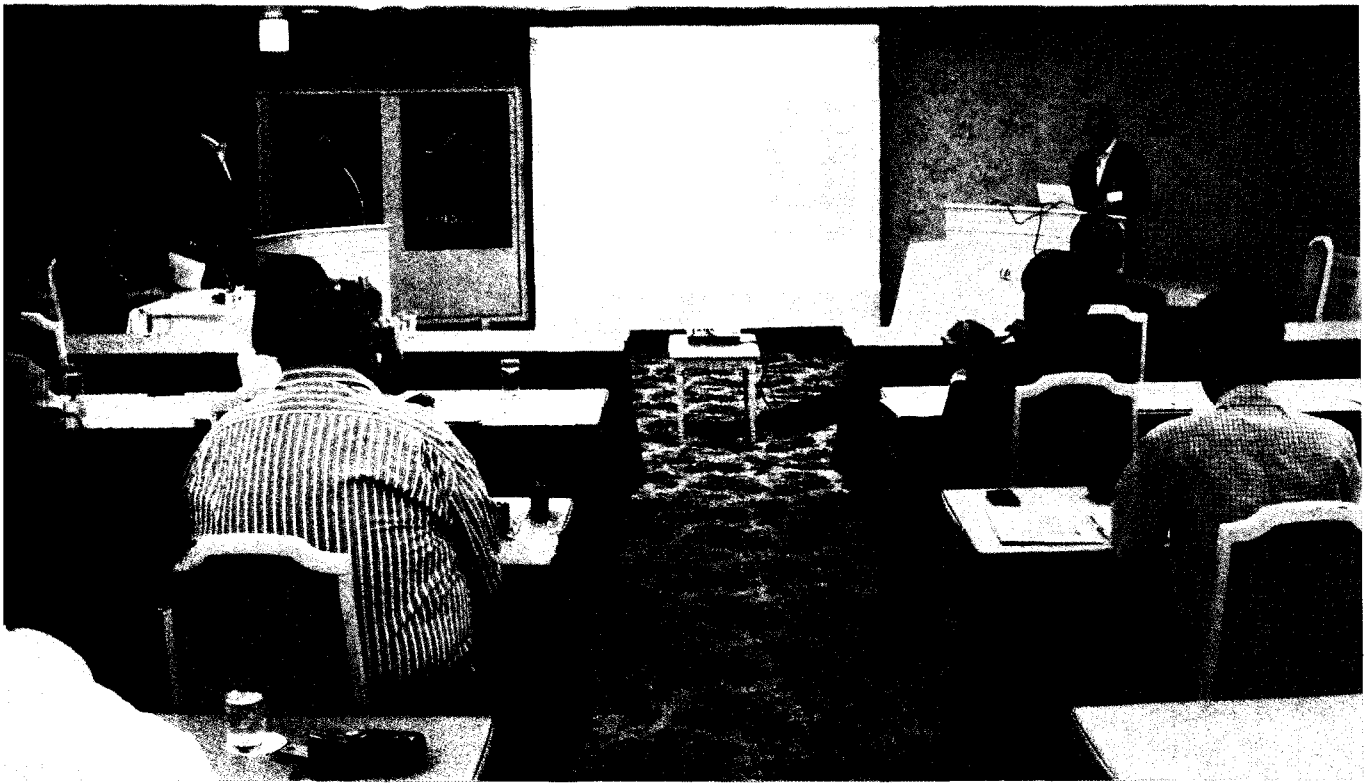


## IGAS2011 미디어컨퍼런스

# 오는 9월 16일부터 5일간 IGAS2011 열려 지진 피해 딛고 인쇄산업 반전 계기 염원

일본인쇄기재단체협의회(회장 고모리 요시하루)는 해외 인쇄전문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IGAS2011 전시회 미디어컨퍼런스를 지난 7월 28~29일 이틀간에 걸쳐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도쿄 프린스호텔 11층 회의실 수에히로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 중국, 대만, 홍콩, 호주, 인도, 필리핀 등의 인쇄전문기자가 참석했으며 개회식에서 일본인쇄기재단체협의회 교지 히구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11일 발생한 비극적인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적지 않은 인쇄업계도 피해를 있었으며 IGAS를 치를 박사이트전시장이 위치한 도쿄 지역도 전력부족에 따른 계획정전 및 전력사용 절감이 실행되고 있지만, IGAS2011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해외출전사들은 아무런 염려없이 많은 출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이번 컨퍼런스는 첫날 IGAS2011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이어 주요 출전사의 소개 및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녁에는 11층 다카사고홀에서 열린 환영회에서 일본인쇄기재단체협의회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은 “IGAS2011 전시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3월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국민과 산업, 인쇄업계에 피해가 컸지만 이번 IGAS2011이 이런 불행을 회복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국내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인쇄업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참가 업체 수가 8월초까지 308개사, 2718개 부스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직전 전시회였던 IGAS2007에 비해 약 60%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만 프리 프레스에서 인쇄, 후가공에 걸쳐 세계의 주요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활기 넘치는 많은 벤처 기업이 출전하게 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일본인쇄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투어코스를 마련, 후지제록스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요코하마에 위치한 일본 신문박물관, 웹 투 프린트 및 POD인쇄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인쇄사인 FIS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Print Your Future!’와 동북지역 부흥의 강한 열망

IGAS2011의 테마는 Print your Future! 다. 인쇄는 환경과 함께 진화한다는 것을 내세운 것이며 환경오염으로 지적받는 인쇄산업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IT를 활용해 진보된 미래지향적인 인쇄를 표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의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 동북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오랜 경기침체에 대지진, 방사능공포까지 어우러져 일본 사회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IGAS2011이 적어도 인쇄 산업 부문에서 일본 동북지역의 부흥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특별기획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메인테마에 못지않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쇄기재단체협의회는 이번 전시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일본 인쇄산업의 건재와 오랫동안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인쇄업을 반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오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열리는 IGAS2011는 ‘Print Your Future!’, Print Evolution in harmony Environmental Change (환경 변화에 조화를 이룬 인쇄의 혁명)을 내세우며 최신 인쇄, 지가공, 디지털 그래픽 관련 장비와 기술을 한자리에 모인 국제 종합 인쇄 기제전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IGAS2011를 주최하는 일본인쇄기재단체협의회는 현재 인쇄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안, 인쇄 산업의 장래와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일 예정이며 동시에 인재의 국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인쇄 관련업계의 활성화와 교류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도 일본 무역 진흥기구, 일본인쇄산업연합회, 일본인쇄 학회, 일본디지털콘텐츠협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전시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전시장 면적은 5만1380평방미터, 전시면적은 2만 3973평방미터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속 가능성 시대의 종이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환경관련 국제포럼이 개최되고, 동일본의 지진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포토갤러리행사 등도 열리게 된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출판 및 제품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디지털 출판 코너’에 통합적으로 마련되며, 진보된 기술을 선보이게 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존’은 치바대, 도쿄대학교, 도쿄기술대학 등 14개의 대학연구소에 참여하여 다가올 미래를 주도하게 될 첨단 기술의 일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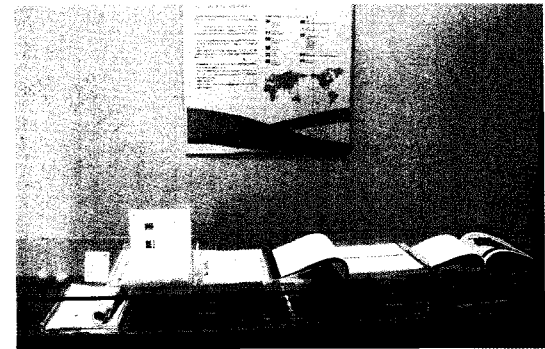
이외에도 인쇄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 보급되고 있는 일본 컬러인쇄에 관한 세미나가 열리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인쇄산업을 둘러싼 최신 동향을 소개하게 된다. 주최 측은 새로운 입출입 시스템의 도입으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15%의 전력 절전으로 전시장 내의 냉방과 조명의 다소 줄어들게 되지만 전시장 내에서 ‘Cool Biz’ 패션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편안한 전시장에서의 비즈니스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행사 둘째날 방문한 후지제록스 고객만족센터와 FIS의 디지털 프로덕트센터를 소개한다.



인사중인 요시하루 회장

## 〈후지제록스 고객만족지원센터〉 고객에게 생생한 체험 시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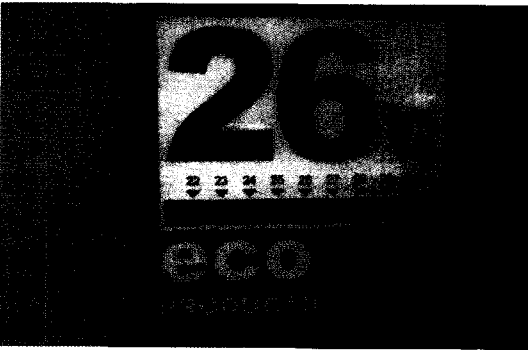
후지제록스 고객만족센터에 전시되어있는 전시물들

후지제록스의 고객만족센터는 일종의 소비자 견학 코스였다.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규모와 관람 코스의 세심한 배려였다. 후지제록스가 지향하는 대고객 서비스와 제공하는 서비스,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디지털인쇄기인 컬러1000 프레스의 시연으로 출력된 인쇄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편집디자인실의 소개, 실제 주문에 의해 후지제록스의 디지털인쇄기에 의해 생산된 인쇄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고객만족센터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후지제록스는 IGAS2011에서도 무엇보다 고객만족을 우선시하고 하이엔드에서 미들엔드, 라이트프로덕션 장비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제공하는 최대의 디지털인쇄기메이커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낼 것을 준비하고 있다.

〈FIS의 디지털프로덕트센터〉

디지털인쇄기 활용한 첨단 인쇄솔루션 제공



FIS는 웹 투 프린트 서비스, 주문형 컬러 흑백 인쇄, 대형 컬러 인쇄, 각종 제책 서비스, 명함, 카드, POP, 회사의 기획 제작, 봉입 작업, DM 발송 세트 등 디지털인쇄기와 후가공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이다.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디지털프로덕트센터는 기성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에게 최적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잘 살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디지털인쇄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인쇄현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정돈된 작업장의 모습이나 조용한 분위기는 언뜻 연구소나 이공계 대학의 실습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런 파격적이고 앞서 가는 설비에 대해 회사측은 설비의 운영 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어 오는 디지털 프린터를 취급하는 문서 센터를 설립 고객에게 제안하고 그 운영을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하여 프린터 및 관련 설비, 그리고 인력까지 모두 FIS에서 준비한다. 고객은 본래의 핵심 사업에 자본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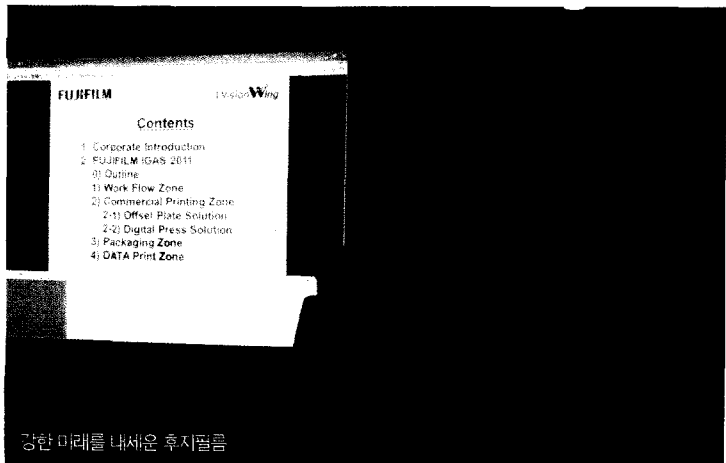
웹 및 MIS 고품질 디지털 인쇄를 연동시켜 고객의 비즈니스 흐름에 직결되는 문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웹 투 프린트 서비스의 표준형 플랫폼을 제안하는 FIS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문서 작업의 최전선에서 고객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프로덕트센터에는 HP 인디고5500, 캐논 C7000VP, 리코 ProC900, 후지제록스 DC8000 등의 디지털인쇄기와 다양한 후가공작업을 지원하는 자동봉입봉침기, 필름엽서압착기, 자동재단기, 중철제책기 등이 다수 설치되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이는 100% Digital Production! 새로운 시대와 함께 복사나 인쇄 개념을 넘어 IT와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 속도의 향상과 자동화를 추진하고 각 공정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프린트 핵심으로 한 편리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인쇄 업계를 선도하고자 하는 FIS의 상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진적인 센터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다음은 주요 출전사를 소개한다.

〈후지필름〉 "인쇄의 강한 미래를 만들자"



후지필름은 "인쇄의 강한 미래를 만들자"를 이번 전시회의 테마로 내세웠다. 후지필름이 만들고자 하는 강한 미래에는 i-Vision X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패키지인쇄와 데이터인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i-Vision X는 하이브리드 프리프레스, 디지털인쇄, 진보된 친환경 인쇄로 상업인쇄, 출판, 사인물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을 제작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후지필름은 i-Vision Wing으로 이름하고 고객들에게 매우 편의적이고 효율적인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후지필름은 IGAS2011의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후지필름이 데이터프린팅, 패키지 프린팅, 상업인쇄, 디지털 프레스 솔루션, 오프셋 플레이트 솔루션을 어떤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지원하며 고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인쇄를 구현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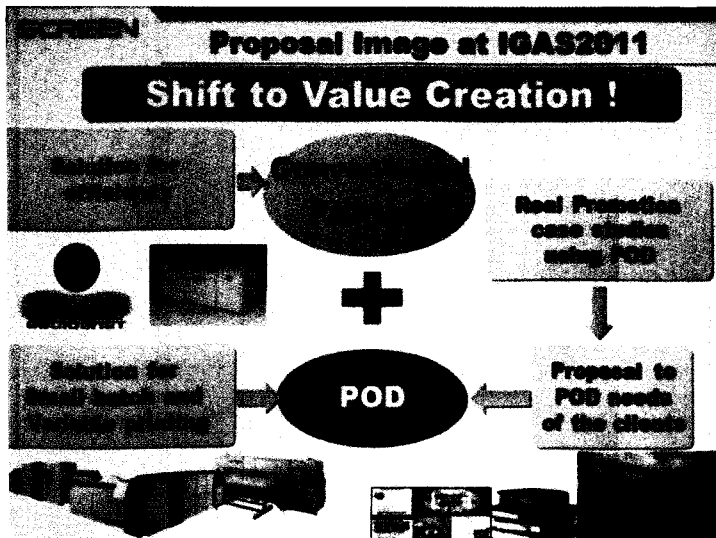
후지필름이 내세우고 있는 중심적인 개념인 'One Promotion Flow'는 후지필름의 워크플로인 XMF가 핵심적인 생산시스템이다. 그중 가장 최신 버전은 XMF-4로 토털 워크플로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다. 아이패드 등 웹을 통한 기능의 활용, 디지털 인쇄를 통한 추가적인 CTPs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공정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한, 후지필름은 새로운 CTP플레이트로 PRO-T3 기존의 공정을 1단계 생략하는 공정생략형 CTP판재를 실현하고 있다. 무화학, 무폐기물을 통해 고 품질, 고생산성을 함께 하는 표준형 CTP판재 생산을 현실화하고 있다.

IGAS2011에 출품되는 주요 제품에는 높은 현실적응력을 갖춘 3세대형 인쇄시스템인 Jet Press 720, POD인쇄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POD시스템인 후지제록스 컬러1000프레스, 대형 라지포맷 잉크 프린터인 HS-X2 등을 선보이게 된다.

### <다이니폰스크린> 고객의 가치 창출지원



가치창출을 강조한 스크린의 개념도

다이니폰스크린은 이번 전시회의 컨셉을 ‘고객의 가치 창출’에 두고 있다. 많은 고객들에게 세분화되고 개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가치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이니폰스크린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POD인쇄로 세분화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고객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위치에는 통상적인 인쇄와 POD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다이니폰스크린은 이를 지원하는 가운데 효율성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제 프로모션 사례에 따라 사용된 POD의 연구로 개별고객에게 유효적절한 POD를 제안한다.

스크린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풀컬러의 B2사이즈의 작업이 가능한 트루프레스젯 SX, 고성능 POD인쇄를 지원하는 트루프레스젯의 흑백판인 트루프레스젯520 EX 모노크롬, CTP판의 출력력의 최신 버전으로 시간당 최대 67장에 달하는 판재를 처리할 수 있는 플레이트라이트 HD 8900D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의 메인테마인 친환경성에 있어서 스크린은 CO<sub>2</sub>의 감소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1000매 정도를 처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CO<sub>2</sub>를 최대 55%나 삭감하는 효과를 거둬 친환경적인 인쇄작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호리존>

### 미래세대 위해 지속가능한 메시지 전달



**Intelligent automation New Products Horizon**

**BQ-270V Perfect Binder**

- All set-up is completed in less than one minute by inputt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the 10.4 inch color touchscreen.
- Sensor-activated Book Thickness Caliper is included as standard. Book thickness can be adjusted automatically, to allow changeover for the next bookblock while the binder is cycling. For variable book production, cycling time is 30 percent more efficient than conventional models.

호리존의 신장비 설명

제책기 전문 메이커인 호리존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을 테마로 잡았다. 디지털혁명이 그래픽 아트산업에도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나 호리존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디지털 인쇄의 요구에 적합한 제책공정을 지원하고 첨단화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제책라인을 선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리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프셋과 디지털인쇄 시장에서 품질과 효율성은 크게 진전되고 있어 호리존은 양쪽 모두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의 최신 솔루션인 pxnet는 전시회 기간 동안 끝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워크플로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호리존은 IGAS2011 기간에 다양하고 실제적인 데모를 제공할 계획이며 그 가운데 퍼펙트 바인딩 존은 기존에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군인 BQ-470+V-470S(4챔버 전자동 제책기), SB-07(7챔버 전자동 제책라인)을 비롯하여 신제품인 BQ-270C(1챔버 전자동 제책기, 가변 제책 가능), HT-30C(삼방 트리

● 행사 IGAS2011 미디어컨퍼런스

밍 가능, 가변 트리밍기능)등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신제품인 BQ-270은 1분이면 가동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세팅할 수 있으며 10.4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을 채용, 작업자의 원활한 작업을 돕고 있다. 센서로 책의 두께를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가변적인 다양한 책을 제책작업 중이라도 바꿀 수 있어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 30% 이상 높은 생산성을 실현한다.

〈코니카미놀타〉

Change! 단순하지만 명확한 테마 내세워



코니카미놀타는 POD인쇄, CMS, 잉크젯 프린터, 텍스타일 인쇄용 잉크젯 프린터 등 기존의 오프셋인쇄에서 폭을 넓힌 광범위한 부문에 대응하는 각종 시스템과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코니카미놀타는 현재 라이트프로덕션 디지털인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CMS부문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현재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세계 프로덕션 프린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2014년까지는 25%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니카미놀타는 갈수록 짧은 납품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가치를 더하는 인쇄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아웃소싱, 수익성 응용 프로그램이나 관리 인쇄 솔루션을 공급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익률이 높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트랜스프로모, DM 시장을 겨냥한 제품군, 짧은 기간에 생산성이 높아야 하는 제품군으로 세분류하여 대응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코니카미놀타는 웹 투 프린트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마케팅 디자인과 IT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오프셋인쇄에 의한 대량인쇄를 비롯하여 POP, 티켓 등을 겨냥한 고속 잉크젯인쇄, 와이드 포맷 인쇄와 쿠폰, 메일 매거진, 전자책을 겨냥한 웹 투 프린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료비〉 "고객과 함께 진화" 내세워



료비는 이번 전시회의 컨셉을 '고객과 함께 진화하는 료비'로 잡았다. 료비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높은 부가 가치 인쇄, 환경 솔루션으로 전 사회에 인쇄의 새로운 접근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전시 모델은 금박 및 광택 코팅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UV 주조 및 금박시스템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료비는 ryobi 1050-1 및 928P 등을 전시장을 통해 고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료비의 관계자는 928p는 최대 A1크기의 인쇄를 할 수 있으며 8색의 오프셋인쇄를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비용절감과 함께 고품질의 인쇄와 많은 작업량을 자랑한다. 또한 LED-UV인쇄시스템도 탑재해 후가공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다. 1050-1은 국전판을 보다 늘린 고속오프셋 단색인쇄기이다. UV 코팅기능과 금박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

료비는 또한 샘플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자외선을 사용하여 홀로그램 코팅, 금속 코팅, 금박 등 각종 인쇄 샘플을 제조하고 표시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hp〉 풍부한 솔루션, 시스템으로 우월성 과시



일본HP는 IGAS2011에 특별한 구호보다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력을 관람객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HP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6200개의 유닛에 달하는 인디고가 설치·가동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1000개 이상의 유닛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는 인디고를 비롯한 자사 제품군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밝혔다. 일본HP는 현재 100개 유닛 이상이 설치·가동중인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을 비롯하여 한국에 이르는 13개국에 달하며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은 2번째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태지역의 성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유럽, 북미, 일본의 인쇄산업의 생산액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10% 이상의 마이너스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중국은 1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아태지역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HP는 디지털인쇄장비 부문에서 선두를 공고히 하고 있어 IGAS2011의 현장을 찾은 관람객은 독특한 기술과 뛰어난 품질을 갖춘 HP제품들의 빠른 작업속도와 최상의 이미지 품질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놀라운 것을 고객에게 전하는 HP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회의 장이 되는 디스콥 아시아 컨퍼런스도 이번 전시회 기간인 9월 15~16일 기간에 도쿄에서 열리게 된다. 일본HP는 오는 드루파 2012에서 2016에 이르는 기간에 모든 것이 디지털인쇄물의 수량이 해마다 2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듀플로〉 인쇄에서 제책까지, 토털 솔루션 제공



토털솔루션을 강조한 듀플로

듀플로는 자신들은 작은 회사지만, 자사의 제품이 고객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는 회사의 경영철학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현재, 듀플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태국, 홍콩,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10여개 국가에 대리점 또는 자회사를 두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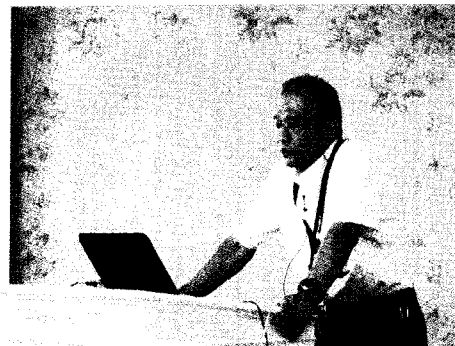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듀플로는 프리프레스에서 인쇄와 정합, 접지 등의 후가공을 거친 후에 라벨작업, 스테플러 작업 또는 바인딩 과정을 거치는 공정을 높은 효율성으로 지원하고 있다.

듀플로는 IGAS2011기간에 최대 분당 200페이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잉크젯 인쇄기 DIJ-200 및 600dpi×600dip의 해상도로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DP-U950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제책시스템이 주력부문의 듀플로는 제책, 트리밍, 스템킹 등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Off-line 시스템도 선보이게 된다. 듀플로는 오프셋 인쇄 시장 및 디지털 인쇄 시장에서 고객을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모리〉

#### 멀티작업 가능한 플렉소 인쇄솔루션



하이브리드 인쇄를 강조한 고모리

고모리는 단일회사로서는 최대 크기인 2250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서 전시관을 꾸민다. IGAS2011에 임하는 고모리의 메인 테마는 Komori Solutions for Efficient Print Production(효율적인 인쇄 작업을 위한 고모리 솔루션)이다. 고모리는 인쇄 솔루션 부문에서 혁신적인 오프셋 온디멘드솔루션, 하이브리드 UV 패키지 인쇄솔루션 및 효율성을 높고 멀티작업이 가능한 플렉소 인쇄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모리가 선보일 오프셋 온디멘드솔루션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매우 짧은 납기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고속작업과 높은 품질의 오프셋인쇄를 가능하게 한다. 전시회 기간동안 선보일 오프셋 온디멘드의 8색 컬러 리스론 G40P와 4컬러 리스론 S26은 고모리의 첨단 기술인 하이브리드 UV 경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신형인 G40P는 패키징과 특수가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또한 코팅 유닛과 H-UV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대형 포맷의 인쇄에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모리는 전시장을 찾게 될 관람객들은 KHS-AI의 안정적인 성능과 H-UV의 경화기능, 신속한 후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빠른 경화속도 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고모리는 웹 투 프린트의 경향에 적극 대응하는 코너, 고모리의 높은 보안기능을 입증하는 코너, 친환경 코너 등을 꾸며 고모리의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